

<서 평>

현용준 · 현승환 1997 『제주도 무가』

제주 전통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초석

한 창 훈¹⁾

1

평생을 제주의 무속과 무가 연구에 바친 현용준 제주대 명예교수의 노작인 『제주도 무가』 자료집이, 현승환 제주대 교수와의 공동작업을 거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 고전문학 전집의 제 29집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나왔다. 서평자는 대학시절 현용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제주의 무속과 무가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집을 발간하는 기관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옆에서나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발간과정을 지켜 보았다. 이런 과정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의 하나라 할 수도 있겠다.

사실 현용준 교수의 제주무가에 대한 자료집 발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무가 연구사에 있어 하나의 결실로 여겨지는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신구문화사 1980)은 이제 자료집 자체의 구입이 힘들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 연구자를 위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힘들다. 문고본으로 나온 『제주도 신화』, 『제주도 전설』(서문당 1976, 개정판 1996)도 일반인들의 접근은 용이하나, 원문과 주석이 없어 전문 연구자들의 의욕을 만족시키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나온 『제주도 무가』 자료집은 원문은 물론 주석과 해설이 풍부해서, 위의 자료집들의 단점들을 보강한 제주무가 관련 자료의 결정판이라 할 만 하다.

이에 서평자는 『제주도 연구』의 지면을 빌어, 이 자료집의 특성과 그 공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제주 전통문화의 총체적 연구방향을 같이 모색해 볼 것이다. 근대 산업사회를 넘어서 이제 탈근대 정보화 시대의 논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제주 전통문화의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 인류학자의 지적처럼, '전통에 대한 강조를 통해 문화적 정체감이 강화되고, 전통은 제주 사람 전체의 통합을 위한 상징으로 그 의미를 갖는 것(유철인 1986)' 인지. 만일 그렇다면, 그 전통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쓰여지는 이 서평이 진정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서평자만의 소망이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2

『제주도 무가』는 제주도에 분포된 무가를 크게 1. 서사무가, 2. 회곡무가, 3. 일반무가, 이상 셋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1. 서사무가에서는 (1) 일반신 본풀이에서 '천지왕 본풀이' 등 12편, (2) 당신 본풀이에서 '내왓당 본풀이' 등 11편, (3) 조상신 본풀이에서 '나주 기민 창조상 본풀이' 등 6편을, 2. 회곡무가에는 '영감놀이' 등 3편을, 3. 일반무가에는 '초감제' 등 3편을 들었다. 이상 총 35편의 『제주도 무가』는 짝수면에 원문을 제시하고, 홀수면에 현대역을 제시하여 상호 참조하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한자어는 한자를 병기하고, 제주도 방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상세한 주석을 붙여서, 작품 감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제주도의 무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본풀이'라고 불리는 소위 서사무가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갈래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일반 본풀이는 본토에도 있지만, 당 본풀이는 제주에만 있다. 이 중에서 당 본풀이가 일반 본풀이보다 먼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승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당 본풀이에서 더욱 오랜 형태의 사유 양식을 찾아 낼 수 있어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에 매여 있는 심방'이라는 뜻으로 '당 맨 심방' 혹은 당 매인 심방'이라고 하는 무당이, 본향당의 신을 마치 자기의 주재자나 주인처럼 모시고 받들며 본풀이를 구연하고 전승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문화를 밝힐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은, 사실 현용준 교수의 선구적 업적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자료들(최길성 역 1987, 심우성 역 1991, 1993)이 근간이 되어 왔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자료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자료들은, 그 분석과 연구에 있어 우리의 주체적 시각을 반영하기 적절하다.

이점에서 본 자료집의 구전 자료와 기존의 문헌 자료를 결부시켜 연구할 수 있는 단초들이 주목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고조선·부여·고구려·신라·가야 등의 신화에서는 무가와와 관련을 각기 그 현장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못하는 난관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 전국신화가 한쪽은 기록으로 한쪽은 구전으로 나란히 전해지고 있어, 둘 사이의 관련 양상을 통해서 흥미로운 결과들(현용준 1992, 장주근 1995, 조동일 1997)을 찾아낼 수 있다.

제주도 삼성신화는 원래 지금의 제단 자리에 있는 굿당 광양당에서 굿을 하면서 부르는 삼성 본풀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본풀이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지금 전승되는 당 본풀이를 삼성신화와 결부시켜 분석하면 삼성 본풀이의 모습을 짐작하게 할 수 있다.(조동일 1997) 여기서 주목되는 당 본풀이는 '괴내깃당 본풀이', '천자또마누라 본풀이', '송당본향당 본풀이' 등이다. 이는 고대 제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무가가 아닌 설화 전승에서도 주

인공의 시련과 투쟁의 모습을 포함한 서사가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당 본풀이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 갈등 세력도 토착 지배 세력이 아니고, 중앙 정부의 정치 권력인 경우가 많다.(현길언 1981) 한편 일반 본풀이는 대개 설화로도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 자료집에 수록된 많은 작품을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꼼꼼히 살펴본다면, 기존 자료의 연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었던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당면 문제는,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의 함양에 있는 것이다.

3

위에서 다소 개략적으로 자료집의 체제와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능한 연구 방향을 대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제 여기에서는, 서평자가 이 자료집을 대하고 아쉽게 느꼈던 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분류체계의 문제다. 합리적 분류체계는 제주의 무가는 물론 한국의 무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존재의 층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분류체계를 통해 이러한 점을 만족할 만 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자료집의 서사 무가, 회곡 무가, 일반 무가의 분류는 그 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적실하게 드러내는데는 다소 미흡하다. 이 분류의 문제점은 자료의 거의 대부분이 서사무가에 치중되어 분류된다는 점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존의 '주제에 따른 분류'(김태곤 1988), 혹은 최근의 '서사적 행위의 주인공이 가지는 실제의 모습에 따른 분류'(조동일 1997) 등이 참고될 수 있다.

다음은 무가의 구연에 따른 현장적 정보의 제공이 다소 미흡하다

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무가는 그 자체가 훌륭한 문학 자료이지만, 동시에 굿이라는 제의 중에서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무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가가 생성되는 굿이나 그 굿을 둘러싼 현장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부기되어, 독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본 자료집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작품의 서두에 현장 정보를 수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평자가 보기에 지금 정도의 정보로는 독자가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재구해내고 굿이라는 현장과 무가라는 문학을 관련지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략하다. 더구나 현재 예상되는 이 자료집의 독자들은, 굿이라는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가채록 자료집을 구성하는데 있어, 그 현장성을 되살릴 수 있는 체계의 고려는 거듭 강조되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가만이 아니라, 설화·민요·방언 등 모든 구전문학 갈래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적 문제점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본 자료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성과는 탁월하다고 생각된다. 『제주도 무가』의 자료적 가치는 이미 많은 논저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실을 다시 강조한다는 것도 사실 멧쩍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가치는 자료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잘 조직화되고, 이후 본격적 연구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구태어 일차 자료를 다시 뒤적이지 않아도 찹찹하지 않은, 이런 믿을 만한 자료집 간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노작의 성과가 곧바로 제주 전통문화의 총체적 이해에 상응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그 성과가

전문 연구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전파되고 이해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그러면, 여기서 거듭 강조되는 제주 전통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서평자는 제주 전통문화가 총체적으로 이해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뜻을 되살릴 수 있으려면, 먼저 넓은 범위로 산만하게 퍼져 있는 기존 연구성과를 최대한 하나로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존 연구성과의 정리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서평자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자. 서평자는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한국통신의 지원을 받아 작업한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한국 전통문화 정보』 구축에 있어, 기획과 실무 작업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주로 한국 민속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된 자료 수집에 참여하면서, 서평자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보다 이용가치가 높은 자료가 의외로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 놀랐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아 그 활용가치가 뛰어난 사진 같은 이미지 자료, 그래픽 자료, 비디오 자료, 오디오 자료 등 소위 멀티 미디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크게 부족하였다. 그리고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해도 개인이나 특정 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그 열람과 이용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특히 문헌 자료보다 구비전승되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욱 풍부한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기본 자료의 이용이 현재처럼 힘든 경우에, 그 이상의 구체적 연구성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힘든 일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역에서 나름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도 질 수 있는 기관이 앞장서서 관련 자료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서,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개방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처럼 기존 연구성과가 제대로 집적되고 정리되어 검색의 편의까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사실 그 다음의 진전되고 구체화된 연구작업이 더 중요하며, 이는 전문 연구자의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기존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이런 연구 작업들이 주로 개인 연구자들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개인 연구자들이 거둔 나름의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제주 전통문화의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사실 제주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무가의 이해만으로, 혹은 유배문화의 이해만으로, 혹은 민요의 이해만으로, 혹은 방언의 이해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서평자는 제주 지역의 책임있는 연구 및 교육 기관이 앞장서서 제주 전통문화의 총체적 연구를 위한 학제적 연구를 추진한다면, 그 동안 배출된 제주 지역의 수많은 전문 연구인력들의 능력으로도 반드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살핀 문제는 사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후학들이 짊어진 과제다. 따라서, 우리 후학들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서평자 역시 여건이 허락하는데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 대학 강단의 일선에서 물러나신 현용준 교수의 건강을 기원한다. 제주 전통문화를 지키고 연구하는 첫 세대의 한 분인 현용준 교수는, 그 존재만으로도 후학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태곤

- 1988 “한국 무속신화의 유형”
『고전문학 연구』 4 : 73-102,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심우성 역, 秋葉 隆 · 赤松智城 著

- 1991 『조선 무속의 연구』, 서울 : 동문선.
1993 『조선민속지』, 서울 : 동문선.

유철인

- 1986 “제주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탐라문화』 5 : 71-9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장주근

- 1995 『한국 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조동일

-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서울 : 문학과 지성사.

최길성 역, 秋葉 隆 著

- 1987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현길언

- 1981 『제주도의 장수전설』, 서울 : 흥성사.

현용준

- 1976 『제주도 신화』 『제주도 전설』, 서울 : 서문당.
1980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서울 : 신구문화사.
1986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 집문당.
1992 『무속 신화와 문헌 신화』, 서울 : 집문당.
1996 『(개역판) 제주도 신화』 『(개역판) 제주도 전설』, 서울 : 서문당.

현용준 · 현승환 역주

- 1997 『제주도 무가』, 서울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